즉시 배포용: 2019년 9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며 위험한 이들이 향후 총기를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점을 막는 법안에 서명

총기 면허 신청 시 신고에 대응하는 법 집행 기관이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추가 조치에 서명

Cuomo 주지사: "워싱턴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 총기 범죄가 확산되며 국가가 심각하게 해체되도록 방치함에 따라, 더 많은 가족들이 슬픔에 젖고 아이들이 부모 없이 자라게 된 반면에, 뉴욕에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현명하고 보편적인 총기 안전 법률을 제정하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법 집행 기관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며 위험한 이들이 뉴욕에서 총기 면허를 획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타 주 기록에 접근하게 하여 현행법의 허점을 막는 법안(S.2438/A.1213)에 서명했습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영구적인 주거지 위치와는 상관없이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에서 총기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총기 면허가 발행되기 전에 반드시 신원 조회 내역을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의 법률에서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며 위험한 개인과 관련된 타 주 기록에 접근하는 것이 자주 불가능하며, 국립 범죄 기록 신원 조회 실시간 시스템(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 NICS)에서는 비자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나 비자발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위험한 사람들이 뉴욕에서 총기 면허를 신청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법에서는 이 허점을 막게 됩니다. 또한, 주지사는 총기 면허 신청 시 지역 및 주 법률 집행 공무원이 개인의 정보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S.6160/A.7739)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8월 24일 발효된 SAFE 법(SAFE Act)이며 스스로 혹은 타인에게 위협의 징후를 보이는 개인이 총기를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레드 플래그 법안(Red Flag Bill)과 올해 Cuomo 주지사가 제정한 신원 조회 유예 기간 연장 및 범프 스탁 금지 법안 등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법을 바탕으로 제정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 총기 범죄가 확산되며 국가가 심각하게 해체되도록 방치함에 따라 더 많은 가족들이 슬픔에 젖고 아이들이 부모 없이 자라게 된 반면에, 뉴욕에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현명하고 보편적인 총기 안전 법률을 제정하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위험한 개인의 손에서 총기를 없애고 법률 집행 기관에게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도구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뉴욕의 선도적인 총기법을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범죄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를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뉴욕에서 상식적인 총기 안전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뉴욕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법률 집행 전문가들을 도울 것입니다. 사전 조치를 취하여 위험한 사람들을 식별하고 그들이 총기에 접근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우리는 인명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향 주 기록 접근(S.2438/A.1213)
개인은 영구적인 주거지 위치와는 상관없이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에서 총기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총기 면허가 발행되기 전에 반드시 신원 조회 내역을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의 법률에서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며 위험한 개인과 관련된 타 주 기록에 접근하고 참작하는 것이 종종 불가능하며 국립 범죄 기록 신원 조회 실시간 시스템(NICS)에서는 비자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며 위험한 사람이 비자발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뉴욕에서 총기 면허를 신청할 때 현행법에 따라 완벽하고 철저한 신원 조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이 새로운 법률에서는 법률 집행 기관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며 위험한 사람들이 총기 허가를 획득하기 전에 타 주 기록을 검토할 수 있어 허점을 막게 됩니다.

Anna M. Kaplan 뉴욕주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한 총기 범죄의 확산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 뉴욕주에서는 지속적으로 타 주의 신호등 역할을 하며 해결책을 발전시키고 있음에 저는 무척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 총기 면허 신원 조회 과정에서의 위험한 허점을 막게 되며 일시적으로 뉴욕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총기 구매 시 상시 뉴욕 거주민과 같은 철저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이 상식적인 총기 안전 개혁에서 뉴욕이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리며 이 조치의 법제화에 찬사를 보냅니다."

Pamela Hunt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기 범죄는 미국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뉴욕에서는 상식적 개혁의 제정을 통해 애초에 위험한 개인들의 손에서 총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총기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개인을 적절하게 평가하게 되므로 현행법상 위험한 허점을 막게 됩니다. 이 중대한 문제에 있어 국가를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Cuomo 주지사와 입법부 파트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총기 면허 신청 시 정보 접근(S.6160/A.7739)

현행법에 따라, 권총 면허 소지자 및 신청자는 자신의 신청 정보의 공개 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 집행 기관이 신고에 응할 시 획득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의 열람에 거절하는 허점을 만들게 됩니다.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혹은 해당 지역에 총기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면 법률 집행 공무원이 잠재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가정폭력 사건에서 현장에 총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위험합니다.

새로운 법률은 법률 집행 공무원이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스스로의 안전 및 타인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합니다.

Alessandra Biaggi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AFE 법(SAFE Act)은 권총 소지자와 신청자에게 정보 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Law)에 따라 신청 정보 공개 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 법률 집행 기관이 그러한 기록에 접근할 수 없게 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기존의 허점을 막아 지역 공무원이 신고에 응답할 때,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한 가정에 들어가게 될 때 현장에 총기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정보로의 쉬운 접근을 통해 긴급 상황에서 지역 경찰이 사전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므로 스스로와 타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조치를 법제화해주신 Andrew M.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용감한 우리의 법률 집행 공무원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사회에 더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 매우 중요합니다."

Amy Pauli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 공무원들이 신고에 응할 때 출동하는 곳, 특히 해당 가정 내에 총기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때 스스로와 타인을 가장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과 같이 접수되는 대부분의 신고가 가정폭력 사건인 시간대에 지역 법률 집행 기관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이 법률은 이러한 시간차를 제거하고 법률 집행 기관이 가정 내에서 스스로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주는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 및 스스로 및 타인에게 위험 요인이 된다고 간주되는 정신 질환자의 총기를 압류하고, 개인용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를 보장하며, 대용량 탄창 금지 및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고, 2013년 불법적인 총기 사용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탄약 및 총기 단속법 일명 SAFE 법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SAFE 법 통과 이후, 정신 건강 전문가들이 101,517건의 보고를 주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행동과 연관"될 수 있는 정신적 질환자들이 총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정신적 성향이 있는 사람 약 98,582이 제시된 이 보고는 무기 면허를 유보하거나 취소하는 지역 면허 담당관에게 통지하고 지역 법 집행관에게 인도되지 않은 무기를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뉴욕주는 이 법안을 6년 전에 통과시켰으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하고 위험한 무기는 사라지고 위험한 정신질환자는 총기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최근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안을 제정하여, 그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개인이 총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뉴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사와 학교 행정담당자들에게 법원의 명령을 통해 학교 총기 난사를 예방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법은 또한 가정 폭력과 치명적인 총기 폭력 사이의 연결성 제거에 주력합니다.

주지사는 신원 조회 유예 기간 연장, 범프 스탁 금지, 탐지 불가 총기 금지, 화기 안전 보관법 확대, 교육구 교사 무장 금지, 총기 바이백 프로그램에 대한 뉴욕주 전역에 걸친 규제 실시 등 포괄적인 법안을 추진하여 올해 선도적인 뉴욕의 총기법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